

정부 한발 물러서도 강경한 '의료계'

병원 찾은 시민들 "의사도 양보해야" "밀어붙이는 쪽이 이기는 건 아닐것" 오는 25일엔 의대 교수 사직 본격화

정부가 의과대학(의대) 정원 2000명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게 하며 내년 3월부터 늘어난 예정이던 의대 신입생 수가 많게는 1000명까지 줄어들게 됐다.

하지만 의사 단체들이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고수하며 정부 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료 파행이 앞으로 단시일 내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뉴시스가 빅5(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병원에서 만난 시민들은 정부가 대화의 물꼬를 튼지만 의사들이 응하지 않아 의정 갈등이 계속될 것 같다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주말 오전부터 암 환자인 어머니의 치료를 위해

서울성모병원을 찾은 이모(43)씨는 "정부가 교육계가 요청한 의대 증원 자율 모집을 수용했지만 의사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 같다"며 "지난 몇 년을 보더라도 의사가 꼬리 내린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응급실 앞 복도에서 만난 주모(42)씨도 "지인의 아내가 암 판정을 받았지만 의사가 없다고 수술을 못 잡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진짜 의사가 맞나 싶었다"며 "항암 치료 중인 어머니가 언제 통증을 호소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응급실 진료에도 큰 차이가 생각이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오후에도 병원은 진료를 받기 위해 찾아온 환자와 그 보호자들로 붐볐다. 이들은 의료계도 강경한 태도만 고수할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양보해 의료 공백 상황을 빠른 시일 내에 끝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

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도 용인에서 왔다는 한모(54)씨는 "대통령도 그렇고 정부가 이제 양보하겠다고 하는데 의사는 왜 그렇게 강하게만 나가는지 모르겠다"며 "싸울 수는 있지만 양보를 하나도 안 하고 밀어붙이는 쪽이 이기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의사들이 모르는 것 같은데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고 했다.

암 투병 중인 할머니의 병문안을 왔다는 최모(29)씨도 "처음에는 정부가 너무 강하게 밀어붙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다"며 "의사들도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카드들 아예 꺼내지도 않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최씨는 "어릴 때 마트에서 사고 싶은 게 있다고 누워서 때를 써도 어머니가 사주지 않았다"며 "의사들이 원하는 게 있는 건 알겠는데 약간 물러서기도 하며 주장할 건 또 주장하고 해야 하는데 우기기만 하는 모습이 너무 어리석은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등 의료계 단체들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교수 사직과 외래·입원환자 진료 재조정을 오는 25일부터 예정대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희면기자



완도소방, 제3회 의용소방대의 날 및 한마음 축제 개최

완도소방서(서장 박춘천)는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과 희생정신을 알리고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3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식 및 제23회 한마음 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송준표기자



담양소방, 안전한 마을의 리더 이장단 협의회 추진

담양소방서(서장 윤예심)는 불철 화재로부터 안전한 단독주택 만들기 위한 읍·면 이장단 협의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광주 남부소방, 봄철 산악사고 대비 특별구조훈련 실시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김종률)는 산악사고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남구 분적산 일대에서 봄철 산악사고 대비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선욱기자



강홍경찰,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 개최...추진방향등 점검

강홍경찰서는 18일 오전 경찰서 장원마루에서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장흥=김도영기자



나주경찰-영산포 농협, 업무 협약 체결

나주경찰서(서장 장진영)와 영산포농협(조합장 장행준)은 지난 18일 나주경찰서 회의실에서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나주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나주=송준표기자



여수경찰, 교통사고 및 정체해소를 위한 주민간담회 개최

여수경찰서(서장 박규석)에서는 지난 18일 여수시의회에서 여수동 식자재마트 앞 교차로 개선을 위해 인근 주민, 상가관계자, 시의원 등 15여명이 모여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여수=기동취재본부

검찰, '민주노총 와해' 혐의 허영인 SPC 회장 구속 기소

민주노총 노조 반감 갖고 있던 허영인 회장



검찰이 파riba게트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74) SPC 회장을 2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을 이날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병배(70) 전 SPC 대표와 김모(59) SPC 커뮤니케이션선분부장, 김모(63) SPC 대외협력실장, 백모(58) SPC 홍보실장(전무), 정모(63) 피비파트너즈 노무 총괄위원(전무), 정모(55) 피비파트너즈 품질관리실장(상무보), 강모(64) 피비파트너즈 2사업본부장과 전모 한국노총 소속 SPC 노조위원장, 8명의 피비파트너즈 사업부장 등 총 17명, 피비파트너즈 법인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민주노총 조합원 570여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운영에 개입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를 받는다. 허 회장 등은 2021년 5월 인사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낮은 정성평가를 부여해 승진에서 탈락시키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다.

허 회장과 황 대표, 정 전무는 민주노총 노조 지회장의 근로자 대표 지위를 상실시키기 위해 한국노총 노조의 조합원 모집 활동을 지원, 약 6주 만에 조합원을 900명 늘리는 등 한국노총 노조의

조직과 운영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율리 허 회장, 황 대표, 서 전 대표, 김 대외협력실장 등은 민주노총 노조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고 2018년 이룬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자, 한국노총 노조 측에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터뷰를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민주노총 노조원 측이 '전국 11개 협력업체에서 고용한 제빵기사 5300명을 매장에 배치하는 것은 불법파견'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직접고용 등을 담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자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허 회장은 민주노총 노조 활동에 반감을 갖고 있던 중, 2019년 7월 민주노총 노조 지회장이 근로자 대표로 선출되자 황 대표를 징계했다. 이어 한국노총 노조를 키워 민주노총 노조 지회장의 근로자 대표 지위를 박탈시키라고 지시했다.

황 대표가 정 전무 등 피비파트너즈 임직원을 동원해 ▲민주노총 노조 탈퇴 종용 ▲한국노총 노조가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성명 발표 등 범행에 나섰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정 전무는 민주노총 노조 탈퇴 작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빵기사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전 노조위원장에게 건넨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노사갈등을 노조갈등으로 전환해 회사 리스크 관리에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의 지시를 받은 정 전무는 피비파트너즈 8개 사업부장들에게 매일 목표 탈퇴 인원을 지정해 지시했고, 사업부장들은 탈퇴 성공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실무에 나섰다. 현장 중간 관리자들이 "(탈퇴 작업을) 그만하면 안 되냐"고 물었지만, 사업부 간 탈퇴 실적 비교는 지속됐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부장들은 제조장들에게 "민주노총 노조 소속 기사들 중 강성인 애들은 승진에서 배제하라" "승진 가능한 순위권에 민주노총 노조 소속 기사가 있으면 순위권 밖으로 하락시키기 위해 정성평가 점수에 불이익을 줘라"는 등 지시를 했다고 한다.

일부 사업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민주노총 노조 소속 기사는) 시위에 참석했기 때문에 낮은 점수를 줬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승진인사 결과 민주노총 노조 조합원인 승진 대상자들 중 6%만 승진하는 등 불이익을 입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범행 결과, 2021년 1월 730명이던 민주노총 노조 조합원은 6개월 만에 336명으로 줄었다. 반면 한국노총 노조 조합원은 같은 기간 3370명에서 3946명으로 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수시로 황 대표를 거쳐 허 회장이 보고했다.

검찰은 2022년 10월 SPC의 민주노총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접수, 피비파트너즈 관계자 280여명을 조사했다. 같은 해 12월 7일 SPC 그룹 본사와 피비파트너즈 사업부부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이듬해 말 SPC 그룹 본사에 대한 3회 추가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다.

지난해 11월부터 SPC 그룹 소속 임직원 20여명을 조사한 검찰은 지난 3월 22일 황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 출석을 거부하던 허 회장은 지난 5일 구속됐다.

검찰은 해당 범행 수사 과정에서 SPC 측이 검찰 수사관을 매수해 수사 정보를 빼돌린 정황을 발견하기도 했다.

황 대표와 백 전무 허 회장의 배임 등 혐의 수사 정보를 알리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검찰 수사관 김모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이나 검찰 내부 검토보고서 등을 백 전무에게 전달하고, 백 전무는 김씨에게 62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다.

이슬비기자

행인 폭행하고 경찰에 흥기 휘두르고... 광주 50대 구속영장

행인을 폭행한 뒤 달아나고 자신을 찾아온 경찰을 향해 흥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가 구속 기소에 놓였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폭행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 33분께 광주 남구 송하동 한 병원 앞 도로에서 지구대 경찰관 4명을 향해 흥기(톱)를 휘둘러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이보다 앞선 오후 4시 51분께는 송하동 한 도로에서 4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시민 신고를 받고 주저지로 찾아온 경찰이 "자신을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흥기를 들고 나와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경찰관을 향한 흥기 난동 직전 송하동 한 도로에서 상가 안에 있는 여주인을 향해 이유없이 고함쳤으며, 이를 발견한 B씨가 자신을 막아서자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심수련 전 비슷한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나 최근 기간 저지른 범행 전과는 없다. 이렇다 할 정신질환 병력 또한 확인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흥기를 들고 저항하는 A씨를 상대로 공포탄 2발·실탄 3발, 테이저건 등을 쓴 끝에 현행범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다친 경찰관들이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뉴시스